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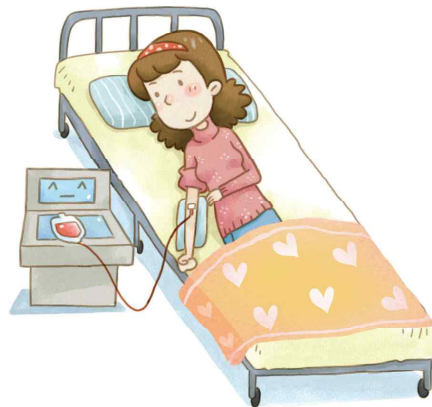


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

대부분의 경우 헌혈관련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, 일부에서는 다음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혈관미주신경반응

긴장, 스트레스로 인해 내장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 자극되어 오심, 구토, 현기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헌혈 전 30분 이내에 500mL 정도의 물 섭취, 헌혈 중 다리를 발목 근처에서 꼬고 다리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, 충분한 휴식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 [혈관미주신경반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주저앉거나 머리를 다리보다 낮은 자세로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]



국소 피부반응

소독약이나 일회용 반창고에 의해 채혈부위에 가려움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신경손상

매우 드물지만 헌혈 시 혈관주위의 신경이 손상을 받아 감각이상, 통증, 근력감소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혈전정맥염

혈전과 관련되어 정맥 내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열감, 압통, 국소 통증, 발적,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예방을 위하여 헌혈 후 정맥 천자부위의 일회용 반창고를 최소한 4 시간 이상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팔통증

헌혈 중 또는 헌혈 후 수 시간 이내에 헌혈한 팔에 발생하는 심한 국소적인 방사통으로, 통증 외의 다른 특이증상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.

구연산반응

성분헌혈 시 항응고제가 헌혈자에게 주입 되어 재채기, 입술떨림, 오심, 구토, 목 뒷부분의 추운 느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우유 등 칼슘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피하출혈 및 혈종

헌혈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피부 사이에 스며들어 생길 수 있으나 충분히 지혈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[통증, 불편감, 출혈반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일정 기간(1~3 주) 경과 후 대부분 회복됩니다]

- 계속하여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헌혈증서 뒤에 표기된 혈액원으로 연락주십시오.
- 헌혈관련 증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헌혈 후 유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!